

한국전통정원에 구현된 풍수미학 연구

- 고산 윤선도의 원림을 중심으로 -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Pungsu Aesthetics of Korean Traditional Garden - Focused on Kosan Yoon Sun-Do's Gardens in Mountain

Sung, Jong-Sa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re isn't much of discussion about survey of traditional Korean garden with a perspective of Pungsu. Strictly speaking, it is difficult to list the names of gardens in which Pungsu theory is applied. But it is necessary to study in depth the Korean garden in mountain in relation with Pungsu. The reason is as follow; First, Pung-su and gardening both reflect man's responsive attitude and approach toward nature. Second, selecting a site for a garden requires aesthetic eyes to consider the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and its compositions, where the perspective of Pungsu can play as an important component at work. Third, Pungsu's complementary function justifies the correlation between Pungsu and Korean gardens. Gardens can be viewed as a solution to complement negative elements of Pungsu on site. This article trie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Pungsu and Korean garden in mountain in terms of Pungsu aesthetics. In Kosan Yoon Sun-Do's Buyong-dong garden, excavated perspectives of Pungsu aesthetics are fell into two categories; the spatial frame based on Pungsu topography and the dimension of enjoyment through visual angles between essential points. The former can be said as Pungsu topography as a mental image which was constructed by selected points and given Pungsu meanings; the latter is visual angles between those points by which make it possible to see and enjoy in comfortable sights. In such way making and enjoying Buyong-dong garden with full of Pungsu oriented meanings and aesthetics, Kosan Yoon Sun-Do enjoyed and sublimated his experience in nature into art.

Key Words: Korean Garden, Pungsu(風水), Aesthetics, Kosan Yoon Sun-Do(孤山 尹善道), Buyong-dong Garden(芙蓉洞園林), Gweomswae-dong Garden(金鎖洞園林)

국문초록

한국정원을 풍수적 시각으로 바라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엄밀히 말하자면 풍수 이론이 적용된 정원을 열거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정원, 특히 산수간에 조영된 전통원림을 풍수와 관련시켜 고찰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 까닭은 첫째, 풍수나 정원 모두 자연에 대한 인간 대응 방식 내지 태도의 산물이라는 점과 둘째, 입지와 차경상 주변 산수와의 어울림을 중시하게 되는 전통원림에서는 풍수적 안목이 유용하게 작용하였을 것이고 셋째, 보다 구체적인 증거로서 풍수의 비보적 처방에 정원 또는 정원적 요소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졌음에 기인한다. 이 글에서는 풍수와 한국정원과의 상관성을 풍수미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정원은 물론

* Corresponding Author : Sung, Jong-Sa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Phone : +82-2-880-1423, E-mail : jssung@snu.ac.kr

풍수의 동시대적 의미와 효용을 풍부히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산 윤선도의 부용동과 금쇄동 원림에 구현된 풍수미학으로 풍수 형국에 입각한 공간 구도상의 틀과, 각 요처들 간의 시각구도에서 발견되는 감상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전자는 보길도 섬 전체의 형국을 읽으면서 핵심 요처를 찾아내어 풍수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서 심적 이미지로서의 풍수형국이고, 후자는 각 요처에서 주변을 보다 편안한 시선으로 감상하도록 해주는 차경과 관련된 시각구도이다. 그렇게 탁월한 안목으로 풍수적 의미망과 미학 가득한 정원 부용동을 조영하면서 고산 윤선도는 아름다운 자연 속 체험을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가 있다.

주제어: 한국전통원림, 풍수, 미학, 고산 윤선도, 부용동, 금쇄동

1. 들어가며

1. 풍수¹⁾로 한국전통원림²⁾ 읽기

풍수 시각에서 한국 전통원림을 다룬 논의는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 그런 시각이 등장한 것도 근래에 들어와서의 일인 듯하다³⁾. 엄밀한 의미에서 풍수 이론이 적용된 정원을 열거하기도 수월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논의조차도 대체로 풍수가 정원 조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이라는 선의 포괄적 주장 정도가 더러 보일 뿐이다. 아마도 그 까닭은 풍수와 정원이 갖는 다른 속성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풍수가 주로 집과 묘지를 위한 입지와 좌향을 다루는 술법이라면, 정원술은 특정 장소에서의 공간을 구성하고 경관을 연출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풍수나 정원 둘 다 특정 장소의 환경 조건에 입각한 특수해적 해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정원은 그 구성요소의 선정이나 배치 등에서 다분히 작정자나 소유자의 개성과 주관적 심미안에 의존하므로 조영 근거를 객관화시켜서 풍수 원리 등의 논리적 시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풍수지리가 땅이 지닌 생기를 읽어 내어 사람이 살거나 문히기에 적합한 땅을 찾는, 다분히 생존과 직결된 필수적 필요의 처방이라면, 정원은 삶의 의미와 여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일종의 잉여적 욕구의 산물이라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존에 필요하거나 중요한 원리들을, 여유와 한적을 추구하는 정원 속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라고 봐야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심미적 감성과 감각적 시각에의 호응을 중시하는 정원의 특성 자체도 풍수가 지향하는 기본적 가치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 그와 아울러 아득히 먼 주산에서부터 이어지는 주변의 지형지세와 물, 그리고 바람의 관계를 따지는 풍수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정원은 우선 그 공간적 크기가 너무 작다. 그럼에도 한국 전통원림을 풍수와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연유는 다음과 같은, 둘 사이의 각별한 연관성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첫째는 풍수나 정원 모두 자연에 대한 인간의 대응 방식 내지 태도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그 구체적 동기나 필요, 기대 효

용 등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풍수나 정원 둘 다 자연을 이해하고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의 적응 방식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이해나 시각, 그리고 접근 방식과 태도 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같은 출발지점을 가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동일한 지향점을 갖는다. 다만 풍수가 기, 에너지, 힘, 미기후의 조절 등을 중시한다면, 정원은 아름다움, 감성, 생동감 등을 추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국 전통원림에서 풍수가 각별한 두 번째 사유는 그것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한국전통 원림은 특정 대지 내로만 한정되기 보다는 주변 자연과 유기적으로 열리고 확산되어 교호함을 지향한다. 그것은 공간적으로는 담으로 둘러싸인 갇힌 땅의 스케일을 넘어서는 광활함이고, 의미상으로는 주변 자연, 특히 산과 물과 바람과의 적극적인 관계맺기이다. 특별히 한국 전통원림에서 풍수적 의미로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입지 선정과 차경(借景)이다. 조선조 정원의 한 특징적 유형으로서 산지에 위치한 원림은 애당초 입지의 선정이 대단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대체로 주변 자연의 전체적인 지형과 경물의 포치, 그리고 그에 따른 경관 구조를 감안하여 입지가 결정된다. 한국 전통정자는 이 같은 입지 선정상의 특징이 집약되어 가장 잘 드러난 곳이다. 정자가 놓인 곳은 대개 주변에서 우뚝 솟아 돌출된 돌혈(突穴) 지점으로서 주위의 빼어난 경치를 감상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리이다. 동시에 정자가 덧붙여짐으로써 그 경치의 효용은 배가된다. 그곳에 앉아 내 정원 안의 경물은 물론, 담장 너머 저 멀리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까지 감상할 수가 있으면서 동시에, 바깥에서 볼 때 정자가 일종의 경관 포인트가 되어 경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원 입지와 차경에는 기본적으로 그 땅 만이 아닌, 주위의 전체 산수의 어울림과 경관 구성까지를 고려할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된다. 바로 이 대목에서 풍수적 시각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필자는 추정한다.

풍수와 한국정원과의 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풍수의 비보적 처방과 관련된 부분이다. 풍수적 처방의 하나로 정원 또는 정원적 요소를 조성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보길도 부용동의 세연지 정원이나 해남 연동리의 마을 숲과 백련지는 그 좋은 예라 할 수가 있다.

이처럼 한국정원, 특히 산수간에 조영된 원림 중에는 풍수적 사유가 짙게 담겨 있거나 구체적인 풍수이론의 현상이기도 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 전통원림의 미학을 풍수시각으로도 이해할 여지가 없지 않는 것이다.

II. 풍수미학 시론

1. 풍수미학의 탄생

우리는 손상되지 않은 국립공원의 자연미에서부터 도시 내의 상업적 경관과 버려진 산업시설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모든 환경을 일상적으로 경험(Bell, 1999: 66)한다. 그리고 그 경험은 통상 미학적 차원으로까지 이어진다. 풍수미학⁴⁾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어의 성립근거는 미학이 갖는 이 같은 일상 속에서 지각되는 감성적 차원과 깊은 관련성(Bell, 1999: 64)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다. 현실 속의 실제 자연이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 풍경이 되는 과정에는 인간의 정신적 의식작용이 개재되어야 하는(Clark, 1979: viii) 것과 마찬가지로, 풍수미학 역시 인간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산과 물, 그리고 인간 삶의 공간양식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의식과 반응됨으로써 풍수미학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행이나 등산 등 일상생활을 벗어난 상황에서 풍경미가 성립되는 것(민주식, 2001: 12)과 대비된다. 환경에 대한 미적 반응으로서 풍경미가 실생활과 분리됨으로써 성립되는 데에 반해, 풍수미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마을 입구에 비보의 일환으로 조성된 마을숲이나 연못 등은 풍수적 원리에 입각해 조성된 공간이면서 주민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삶의 현장으로서 적극적인 실천행위 - 조성, 이용, 관리, 보존 등의 산물이기도 한 것이다. 다만 많은 경우, 풍수는 구체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작동시키기 보다는 심리적 인식과정에 작용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실천하도록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환경이 하나의 정신적인 존재로서 인식될 때 성립된다는 점에서 풍수미학은 풍경미와 궤를 같이 한다.

일반적으로 미학이 예술 및 자연의 미적 현상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백기수, 1971: 9)고 보면 풍수미학은 특별히 정주환경을 둘러싼 주변 자연에 대한 풍수적 시각에서의 미적 차원에 관한 문제라 할 수가 있다. 생존에 유리하고 안전하며 농업생산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내고 구축하려는 것이 풍수의 일차적인 목적이라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 구현은 풍수가 가져다 주는 또 다른 효용으로서 풍수미학 모색의 바탕이 된다. 풍수로 얻게 되는 안정과 쾌적성은 생태 등의 과학적인 근거와 연관되거나 시각을 중심으로 하는 심미적 차원이기도 하고 때로는 심리적인 영역까지도 아우르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작용한다. 산세의 짜임과 물의 어울림은 음과 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심미적 소산이면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맺기를 통해 쾌

적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과학적 사고의 산물인 것이다. 풍수란 과학과 예술 사이에 있는 그 무엇(최창조, 1992: 20)이라는 주장 역시 실용과 미학이라는 풍수의 양면성을 함축적으로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 예술로서 산수화를 모방에 의한 자연미 추구의 산물로 간주하자면, 풍수는 자연미에서 나아가 비가시적 형이상학적 가치(생기, 발복 등)를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자연미보다 상위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⁵⁾. 여기서는 풍수미학을 풍수원리 속에 담겨 있는 미학, 또는 그 원리를 통해 구현되는 미적 차원과 그에 의한 미적 양상의 문제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풍수미학의 구성

풍수미학은 형식과 내용,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풍수가 허여하는 형식미는 풍수 형국을 이루는 산수 경물 개별 혹은 그들의 집합체가 갖는 형식에서 감각적으로 맛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굽이치며 흐르는 물줄기나 산 능선의 유장한 선의 미, 우뚝 솟은 주산봉우리의 당당한 자태에서 오는 장중함, 마을 입구를 감싸고 막아선 바위의 모양이나 크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나 폭포수에서 감지되는 물소리와 물보라의 감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앞에서 말한 조화, 균형, 그리고 올려다 보거나 내려다 보는 조망에서 맛보는 시각적 안정감 역시 풍수미학의 중요한 형식미가 된다. 그에 반해 풍수미학의 비형식적 미 즉, 내용의 미는 풍수적 시각으로 얻어지는 상징이나 의미에 관련된 미적 차원을 말한다. 풍수의 물형론(物形論)은 산세의 물적 형식에 의존하는 것이기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인식되는 상징이나 의미 등을 주로 다룬다. 형상으로부터 유추되는 대상은 추상화된 상징으로 가득찬 은유의 세계이다. 그것은 보는 이의 직감 내지 주관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획득한다. '형상-유추대상-의미'로 이어지는 과정은 형이상학적이면서도 감각적이다. 물형론은 산수의 물적 형상에 대한 심미적 교감의 산물인 것이다.

결국 풍수미학은 풍수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형식적 구성 체계에서 감지되는 시각 중심의 미학과, 그 이면의 형이상학적이념이나 가치에 닿아 있는 내용상의 미학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풍수에서 읽을 수 있는 경관적 특질이나 시각적 미 등이 전자에 해당된다면 상징적인 미나 윤리적 미, 그리고 생태적 미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 풍수미학 고찰의 관점

미학적 관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풍수의 가치는 조화, 균형, 통일, 시각적 안정감, 그리고 완전성의 추구이다. 풍수에서 조화는 음양의 조화, 오행기간의 조화, 그리고 천지인의 조화를 말하는 바(조인철, 2008: 63), "땅과 생명체가 서로 맞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터를 구하고자"(최창조, 2000: 27)하는 일은 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지향점이기도 하다. 비슷하게 풍수는 '태

조산-조산-주산-안산'으로 이어지는 산세의 높낮이와 흐름, 그리고 그것들의 좌우 포치에 있어서의 균형을 지향한다. 좌청룡 우백호로 둘러싸는 주변 산세는 자체로서 좌우 비대칭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안의 터전과는 수직과 수평으로 대비되며 균형을 이룬다(그림 1 참조). 풍수가 지향하는 명당은 대체로 산과 물이 적당한 크기 비례 속에서 교차하는 종류가 많으니 이 역시 산과 물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추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분히 내면적이면서 정적인 미로서 조화는 역동적이고 대비되는 균형을 통해 심화되어 유기적인 통일감으로 이어진다. 물적 대상이 유기적 통일감이나 통일 속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면 미적으로 좋은 것(Carlson, 2000: 29)이란 관점에서 보면 풍수가 지향하는 것은 정확하게 미적 범주로 간주할 수가 있다. 한편 시각적 안정감은 풍수 형국 내에서 지각되는 위요감과 주요 지점들 간의 시각적 상관성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차원이다. 풍수로 구하는 궁극적 요처, 곧 명당은 사방이 산으로 아늑하게 둘러쳐진 가운데 적당히 높은 지점에 위치한다. 좌청룡과 우백호로 둘러싸인 그 곳은 강한 위요감이 확보된다. 또, 적당히 높은 지점이니 풍수 형국 내에 포치된 주요 지점들을 편안한 시선으로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그 자리는 주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체를 지배하듯 관할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것이다. 풍수란 결국 조화나 균형, 안정감, 그리고 통일 등을 통해 달성되는 완전성의 추구, 곧 자연환경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미적 지향이나 실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풍수미학 시론으로서 이 글은 주로 전자의 시각에서 고산 윤선도가 조영한 부용동과 금쇄동 원림에 구현된 풍수미학 읽기를 시도해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풍수를 통해 구현된 미학을 공간 구조 및 조영상의 틀로서 심상 구도의 형성이라는 차원과, 그에 의해 구축된 전체 공간구도상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그 안의 각 장소간 시각구도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풍수적 해법을 통해 달성된 효용의

즐김, 곧 향유를 함께 고찰함으로써 풍수미학의 실효적 의미까지 해석해 보고자 한다⁶⁾.

III. 풍수미학으로 고산 윤선도 원림 읽기

1. 풍수현장으로서 고산 윤선도 원림

조선 최고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고산 윤선도는 실로 다재 다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평생 소학에 심취하여 삶의 신조로 삼았으면서도, 그는 한문시조와 국문가사를 음악과 함께 즐기며 예술적 삶을 살았다. 엄격한 유자의 울타리를 넘어 자유로운 예인으로서의 삶의 영역까지도 기꺼이 즐겼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천문, 지리, 역법, 의학, 공학 등의 자연과학에도 탁월한 지식과 안목을 갖추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문과 예술, 그리고 자연과학을 넘나든 그는 가치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의 삶의 족적에서 특별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영역은 풍수이다. 이론과 실전을 겸유한 풍수가로서 고산(문영오, 2001: 477)은 정조가 도선에 비견되는 최고의 감여가(堪輿家)로 인정할 정도로 조선 풍수사에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⁷⁾. 실제로 고산은 효종 사후에 장지를 고르는 간산(看山)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⁸⁾. 뿐만 아니라 보길도를 찾아내어 자신의 은거지로 삼은 것이나, 금쇄동을 발견하여 정원을 만든 과정에도 그의 풍수가로서의 탁월한 안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남 금쇄동과 보길도 부용동은 고산이 조영한 원림 중에서 풍수적 의도가 가장 강하게 적용된 현장이다. 산꼭대기(금쇄동)와 섬(부용동)이라는 예사롭지 않은 지리적 입지를 굳이 자신의 정원으로 선택한 데에는 그의 풍수가적 안목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금쇄동을 처음 발견하고 나서 그가 감동에 겨워 쓴 수필 <금쇄동기>에는 그 곳의 가치를 풍수적 시각으로 읽어내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다. 그가 풀이한 금쇄동의 풍수적 의



그림 1. 풍수 형국의 균형미. 대체로 풍수 형국은 좌와 우, 전과 후 등에 있어서 비대칭적 균형을 이룬다
자료: 감여도 40,41項 위에 연구자 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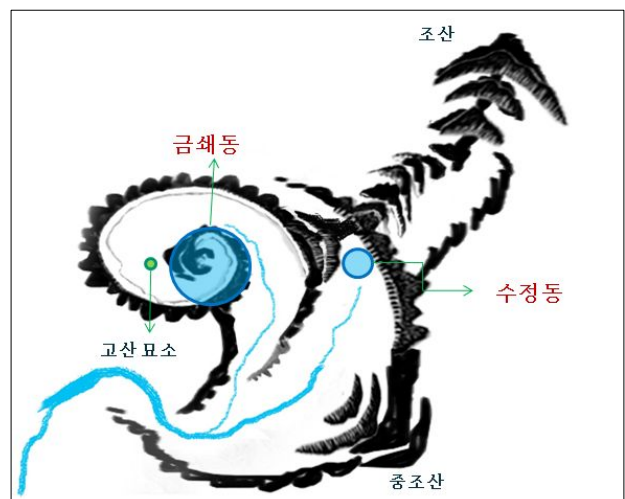


그림 2. 회통고조형으로서 금쇄동의 풍수 구조
자료: 유가현 작도



그림 3. 보길도의 풍수형국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가운데 부용리 곶을 둘러싸고 있어 전형적인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형국을 이룬다

자료: 유가현 작도

미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계곡 너머 길게 휘 감고 있는 병풍산을 거쳐서 멀리 대둔산까지 이어지는 긴 지맥의 흐름을 회룡고조(回龍顧祖)의 형국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형적 관점에서 주변보다 높은 지점인 그곳의 풍수적 의미로서 “미록 만길 위에 북을 향해 있는 곳이나 팔방(八方)의 바람이 들지 않아 비록 천지가 흔들릴 즈음에도 먼지 같은 것이 없는 길지⁹⁾”라는 것이다. 전자가 주변 산세의 흐름에 입각하여 지형지세 맥락으로 읽어낸 풍수형국이라면, 후자는 풍수적 시각에서 미기후상의 이점을 지닌 명당으로서의 장소 해석이다.

보길도 부용동 역시 고산의 풍수가로서의 빼어난 안목이 숨김없이 발휘된 현장이다. 고산이 보길도를 풍수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자신이 직접 지은 부용동이라는 이름과 그의 글에 잘 드러나 있다. 특히 부용동이라는 이름은 그가 당초 제주도로 들어가려던 길에 잠시 들려다가 산수가 예사롭지 않음을 보고 섬에서 가장 높은 격자봉에 올라 섬 전체 형국을 읽고서 지은 이름이다. 크고 작은 산봉우리가 섬의 사방을 에워싸 마치 물위에 떠 있는 연꽃처럼 보인에서 부용(芙蓉)이라 이름을 지은 것이다¹⁰⁾(그림 3 참조). 자신이 찾아낸 섬에다가 연꽃이 지닌 상징적 의미¹¹⁾를 투영함으로써 그곳을 이상적인 길지로 간주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평생에 걸쳐 그 곳을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 경지로 만들고자 애썼다. 그 결과는 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호방하면서도 열린 구도의 공간 조영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해박한 풍수가적 식견으로 격자산 자락 혈치와 섬 내 요처를 찾아내어 자신의 거처인 낙서재(樂書齋)와 각 장소별 적절한 유형의 정원으로 조영함으로써 섬 전체를 자신의 거대한 정원화한 것이다¹²⁾.

2. 고산 원림의 풍수미학

- 1) 심적 이미지로서의 풍수형국 틀과 감각적 장소설계
부용동이라는 이름 짓기나 낙서재·조산·동천석실·세연지

등의 포치는 보길도의 실제 환경에 대한 풍수적 의미화로서 고산이 읽어내어 구축한 풍수 구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들 장소는 특정 장소에서 한꺼번에 조망할 수가 없다. 모두 분산된 다른, 그 장소만의 고유한 시선을 갖는 셈이다. 그러니 보길도 섬에서 이들 장소를 찾아내어 풍수적 해석에 입각한 조영행위를 한 고산은 적어도 다른 두 개의 시선을 겸비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전체 형국을 읽으면서 핵심 요처를 찾아내어 풍수적 의미를 부여하는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요처에서 적절한 장소 만들기에 필요한 시선이다. 전자는 풍수 형국에 의한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고산의 풍수가적 안목에 의해 구축된 마을 속 이미지로 존재한다. 필자는 이를 심적 이미지, 곧 심상(心象)으로서의 ‘풍수 형국 틀’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 심상 틀은 보길도 섬 전체를 정원으로 가꾸어 나가고자한 고산이 마음으로 작성한 일종의 종합계획구조도로서, 전체의 공간 구조를 짜고, 각 장소의 성격과 의미를 개괄적으로 정해 나간 기본 골격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그림 4와 5 참조). 부용동 전체의 공간 배치에 대한 개념적 구도와 각 장소에 대한 개략적인 성격 및 의미 등은 이 틀의 중요한 구성내용이었을 것이다¹³⁾. 여기에는 고산의 풍수가적 안목뿐만 아니라, 땅과 주위 환경에 대한 만능인 수준의 해박한 지식과 독창적인 사고가 모두 집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그것은 앞에서 말한 산점투시형 시선에 입각한 통시적이며 다시점적인 이해와 감상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고 작동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틀은 시간과 상황, 또는 단계별 작업 진행에 따라 변하거나 진화해 나가기도 하였을 것이다. 예로 후에 아들 학관이 주도한 곡수당은 고산의 당초 구도에는 없었으나, 추가 또는 변경되어 그 틀 속에 수용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 틀의 통합적 이면서 과정적인 성격과 작동방식은 동시대의 설계 패러다임과 비견하여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각 장소 고유의 의미나 장소미학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서, 그의 심미적 감각에 의한 장소 만들기가 할 수가 있다. 이 장소 만들기에는 자연환경에 대한 고산의 해박한 과학적 지식과 예술가로서의 창의적인 사유, 그리고 그의 섬세한 미적 감각이 여지없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더불어 고산이 읽고 이해한 부용동의 풍수적 의미망 역시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결국 풍수는 고산이 원림을 조영하려는 데에 있어서 창조적 동인(動因) 내지 근거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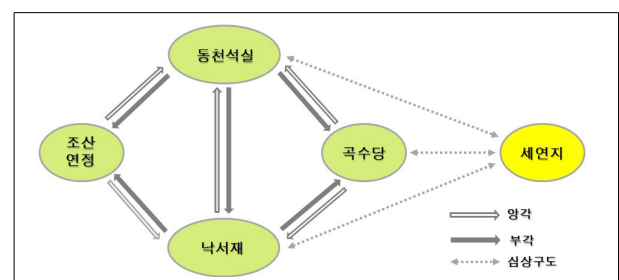


그림 4. 부용동 원림의 시각 및 심상 구도

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세연정의 경우, 부용동 전체 유역에서 흘러내린 주계류 옆 작은 개울가를 택해 흐르는 물을 막은 못(계담 溪潭)과 인공 연못을 나란히 만들고, 연못을 파면서 나온 흙으로 동산을 둘러 정원으로 만든 곳이다. 세연지가 부용동으로부터 흘러내려 온 주계류가 아닌 2차 지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세연지를 비보로 보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세연지의 위치가 외수구 요처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그 곳에 조성된 수공간이 상류측으로 부터 흘러내려와 바다로 빠져나가는 물과 습기, 그리고 공기 등의 기운을 잡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¹⁴⁾. 또한 세연지를 판 흙으로 쌓은 언덕 위에 조성한 숲은 그 자체로 외수구의 비보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땅을 파 만든 연못과 흙을 쌓아 만든 동산 숲 둘 다 풍수적 비보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용동의 풍수 형국 틀과 이들 각 장소의 풍수적 의미는 주변 자연환경과의 의미상의 관계맥락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즉, 부용동의 풍수 형국 틀과 각 장소의 풍수적 의미망에는 부용동에 대한 고산의 풍수미학적 심상 세계가 반영되어 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그와 같은 풍수적 의미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고산이 부용동 원림을 조영하면서 당시 지녔을 심미적 세계, 곧 그의 의경(意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2) 지형 구도와 포치 - 균형과 조화

부용동은 섬 가운데 계곡부 부용리를 중심으로 높고 낮은 산봉우리가 사방으로 빙 둘러져 있는 형국이다. 가장 높은 봉우리인 격자봉 아래에 주저처 낙서재를 앉히고는 섬 내 주요처를 골라 각기 다른 정원을 만들어 즐긴 것이다. 부용동 풍수형국의 중심축은 격자봉-낙서재-조산-동천석실-안산으로 이어지는 선이다. 혈처 낙서재는 석전(石田)과 하한대(夏寒臺)를 각각 내청룡과 내백호로 하면서, 다시 뽕래기재에서 선창리재로 이어지는 능선과 광대봉측 능선을 각각 외청룡과 외백호로 거느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풍수상 형국은 엄정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 채 각기 다른 높이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 주저처 낙서재에서면 좌측으로 석전이, 우측으로는 하한대와 혁희대가, 그리고 정면으로는 안산이 가시권에 들어온다. 산봉우리와 산줄기로 전후좌우가 둘러싸여 있고, 전체 부용리 들판과 계곡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낙서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지형상 적절한 위요와 조망 입지상 안정된 구조가 확보된 지점인 것이다. 그와 아울러 낙서재 좌우 계곡에서 발원한 물은 건너편 계곡 낭음계의 물과 합쳐져 명당수를 이루며 동측(황원포 쪽)으로 흐른다. 하한대 아래와 세연정 앞에서 좁아진 지형은 각각 내수구와 외수구를 이룬다. 비록 작은 섬 안이지만 산과 물, 능선과 계곡이 적절히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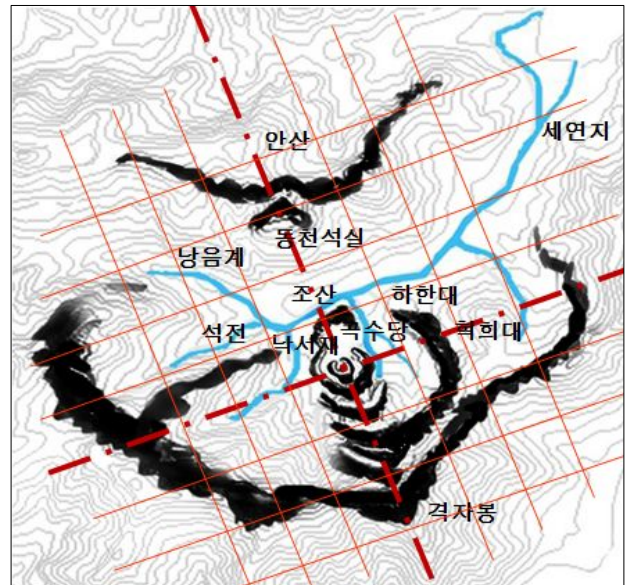


그림 5. 부용동 풍수형국의 구도 - 지형지세의 균형과 조화

다. 이 같은 형국은 '지기(地氣)가 영숙(靈淑)하고 수석(水石)이 기절(奇絶)한'¹⁵⁾ 보길도의 수려한 경관과 더불어 부용동을 최고의 명당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각 요처에 포치된 낙서재, 곡수당, 동천석실, 세연정은 풍수적 의미망을 유지하면서 전체 형국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다(그림 5 참조).

3) 풍수 형국에 의한 시각 구도 - 안정성

인간이 장소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장소의 '상(像)'에 둘러싸여 있음(민주식, 2001: 27)을 의미한다. 부용동은 격자산에서 시작하여 안산으로 이어지는 보길도의 산수를 '상'으로 하는 장소로서, 각 요처에 조성된 정원은 그 '상'을 가장 효과적이면서 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맥점이라 할 수 있다. 부용동 원림의 감상방식은 이중적 구도로 해석 가능하다. 즉, 낙서재와 곡수당, 동천석실, 그리고 세연지 등을 오가는 동선에 의한 동적 체험이 전체 원림 영역 차원의 감상방식이라면, 각 장소별로는 특별한 경관요소와 시선구도를 지닌 정적 감상의 구도가 중시되는 것이다¹⁶⁾.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각 장소에서의 주요 경관요소나 지점과의 시각구조를 분석해 보면 현대 경관 이론과도 잘 부합된다는 점이다.

부용동에서 의미나 심상 구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낙서재이다. 그 곳에서는 눈을 약간 들었을 때 보이는 동천석실에서부터 시선 바로 아래로 부용리 너른 들판과 조산까지가 편안한 시각 범위 내에 들어온다. 배면에 해당되는 격자봉과 수리봉을 제외한 주위 주요 봉우리와 능선이 약각 10도 이내로 아늑한 위요감을 형성하면서 조산, 곡수당, 낭음계, 동천석실을 포함하는 부용동 전체가 상하 5도 이내의 편안한 시각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낙서재에서 조망되는 다른 주요 지점 - 석전, 하한대, 혁희대 등으로의 시선에도 이 같은 안정된 시각구도는 그대로 발휘된다. 결국 고산은 주봉인 격자산을 뒤로 두고서

좌청룡·우백호로 위요된 아늑하면서도 당당한 곳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함으로써 섬 전체 영역을 관장할 주인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것이다. 그 곳은 부암 영역, 곧 부용리 들판을 한 눈에 내려다보면서 양각 영역, 곧 섬의 주요 산 능선으로 위요되는 형국을 제대로 감지할 수 있는 곳이다¹⁷⁾. 다른 차원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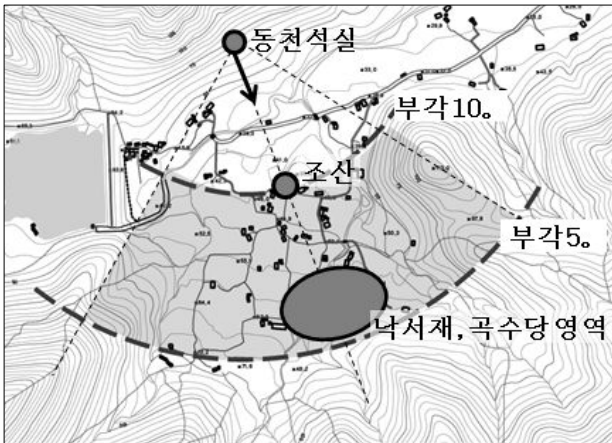


그림 6. 동천석실에서 부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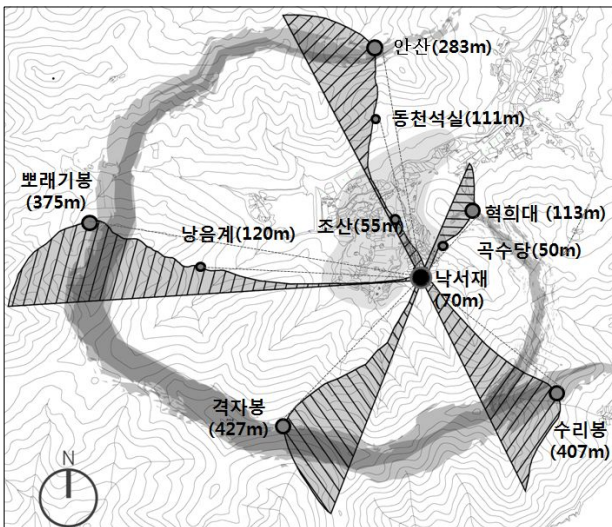


그림 7. 낙서재 입지- 위요와 시각구도

자료: 작도 김도훈

조망과 은둔¹⁸⁾을 담보해 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해 주는 시각구조 상의 요체인 것이다. 말하자면 낙서재는 지형에 의한 안정감 속에서 열린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최적 입지의 주거처로서, 절해고도 육지와 떨어진 섬 안 작은 왕국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존재감을 실감케 해주는 곳인 셈이다(그림 6, 7 및 표 1 참조).

반면, 동천석실은 부용리 골 전체영역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으로 풍수에서 말하는 관산점(觀山點)에 해당되는 곳이다. 석실이나 차 바위 등 동천석실 주변 어느 곳에서든 부각 10도 내에 낙서재와 곡수당, 조산 등을 포함하는 부용리 주영역이 한 눈에 다 들어온다. 뿐만 아니라 석실에서 상하좌우로 눈을 조금만 돌리면 그 시야범위는 격자봉 능선 전부와 부용동 골 전체 영역을 포용한다. 가장 중요한 대상인 낙서재와 곡수당, 그리고 조산은 정확하게 부각 5도 이내에 들어온다. 일반적으로 내려다 보는 시각(俯角)이 10도 이내일 때가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다는 이론¹⁹⁾에 비추어 보면 동천석실이 갖고 있는 이 같은 시각구도는 풍수적 의미를 떠나서 인체공학상으로도 유의할 만하다. 낙서재나 동천석실이 지닌 이 같은 시각적 이점은 풍수 길지 부용동에서 의미나 공간 지리상으로 핵심이 되는 장소로서의 공간 위상(位相)²⁰⁾을 잘 드러내 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6, 7, 8, 9 및 표 1 참조).

표 1. 낙서재의 시각구도 - 주요 조망점과 시선각도

낙서재에서의 시선축	주요 조망점 (고도, m)	시선각도 (°)	직선거리 (m)
뽕래기봉	뽕래기봉(375)	양각 7	2,550
	낭음계(120)	양각 2	1,500
안산	안산(283)	양각 10	1,220
	동천석실(111)	양각 3	855
	조산(55)	부각 3	395
혁희대	혁희대(113)	양각 8	420
	곡수당(50)	부각 5	170
격자봉*	격자봉(425)	양각 16	1,200
수리봉*	수리봉(407)	양각 19	980

*는 낙서재에서 뒤쪽으로 보는 시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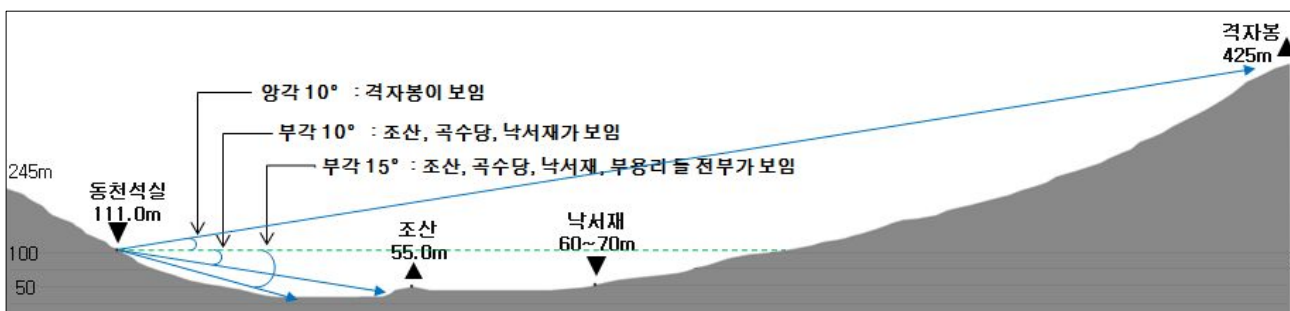


그림 8. 동천석실의 시각구도 부각 10도 내에 낙서재/곡수당/조산 등 중요 영역이 다 들어온다 해발고도는 현지에서 GPS 측정치를 적용함

자료: 유가현 작도



그림 9. 부용동의 관전점에 해당되는 동천석실에서의 조망 주산인 격자산에서부터 시작되어 광대봉과 망월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흐름과, '섬 안 산중'이라고 했던 부용리 들 전체가 한 눈에 조감된다 중앙 나지막한 조산과 그 뒤 격자봉 아래에 낙서재 위치가 정면으로 보인다

4) 풍수미학의 향유

고산 시가작품들 대부분의 배경이 풍수설의 검증을 거쳐 마련된 공간구조(문영오, 2001: 506)라 할 만큼 고산 시가문학은 그가 탁월한 풍수가적 안목으로 찾아낸 자연경승에 힘입은 바가 크다. <어부사시사>와 <산중신품>의 산실인 보길도와 금쇄동이 그 대표적인 풍수 현상이었다. 풍수에 의한 심상 틀에 따라 포치하여 조영한 정원 부용동에서 고산은 오래 머물며 한껏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¹⁾. 그것은 단순히 보기에 좋거나 용도에 적합하다는 식의 실용을 넘어서 정신적 차원에까지 닿아있는 즐거움이었다. 고산 원림에서 구현된 풍수미학의 총체로서, 자연과의 완전성 추구는 고산의 삶과 목적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다. 그의 시와 행장에는 자신이 구축한 원림 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만남을 지향하며, 거리낌 없이 즐긴 흔적이 곳곳에 숨김없이 드러나 있다. 동방의 명승 삼일포보다도 빼어난 보길도²²⁾는 그가 풍수 안목으로 구축한 원림들을 갖추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처럼 이상적인 길지가 되었다. 부용동을 “조화옹이 만든 듯 분방하면서도 자유롭고, 하늘이 내리신 십리의 봉호(蓬壺)”와 같은 곳이어서 “신선처럼 살기에 족한”²³⁾ 곳이라 간주하며 흠족해 하였다. 풍수 안목으로 찾아낸 길지 보길도는 그의 풍수적 해석과 처방을 통해 최고의 이상적 길지 부용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그런 이상적 경지 속에서의 자족하는 삶을 그는 마음껏 누렸던 것이다. 자신의 심미안에 맞는 장소를 찾아내어 정원으로 조영함으로써 한껏 고양된 만족감은 그의 예술적 성취로 전이되었음직하다. 특별히 고산의 작품 중에서 그의 풍수가적 면모가 드러나 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장재도(藏在島)>²⁴⁾

작은 섬 산의 궁궐인데	小島當山闕
그 이름도 갈무리하는 섬이라네	其名藏在曰
숨겨 둔 게 무슨 재물이던가	藏在問何財
맑은 바람과 맑은 달이라네	淸風與明月

장재도는 황원포 바로 앞에 위치한 섬이다. 낭음계에서부터 내려온 계류가 바다로 흘러나가는 출수구 앞에 위치하고 있어 일종의 방패막 구실을 하고 있다. 원진수(元辰水)가 곧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외면산(外面山) 구실을 수행함으로써 보길도를 대길지로 만드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문영오, 2001: 499) 섬이다. 첫 행의 ‘궐(闕)’자는 보길도의 기의 흘러감을 막아주는 자물쇠 역할을 한다는 의미망으로 해석할 수도(문영오, 2001: 499) 있다. 결국 장재도를 물이나 기가 곧장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면서 맑은 바람을 갈무리해 주는 역할, 곧 장풍(藏風)이라는 풍수상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의미요소로 간주하고 칭송한 것이다. 자신이 찾아낸 보길도가 풍수 길지임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그런 형국 구도를 완성시켜주는 요소로서 장재도를 주목하고 찬미하고자 하는 것이다. 풍수적 의미망을 교묘히 살리면서 자연물에 대한 신뢰와 정신적 교감을 노래하고 있다. 이 같은 풍수적 관점에서의 자족과 그에 따른 향유는 고산이 보길도에 들어가 정착한 첫 해에 쓴 시 <황원잡영 黃源雜詠>이나, 금쇄동을 발견하고서 감격하여 쓴 <金鎖洞記> 등 여러 곳에 숨김없이 잘 드러나 있다.

Ⅳ. 마무리

이 글은 풍수가 지닌 미적 함의를 ‘풍수미학’이라는 개념으로 다루어 본 것이다. 한국 전통원림 작정의 한 원리로서 풍수의 제 속성 중에서 심미적 차원에 주목하여 미학적 의미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입한 ‘풍수미학’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어는 저간에 지술(地術) 위주로만 간주되어왔던 풍수를 미학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와 보려는 의도로 제시해본 용어이다. 한국 전통원림에서 풍수미학을 찾아보고자 한 본 글의 요지는 풍수가 조화, 균형, 그리고 완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학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풍수의 산물로서 원림 속의 공간구조 역시 미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구

체적인 현장으로서 조선 중기 고산 윤선도가 조영한 해남 금쇄동과 보길도 부용동 원림을 들고, 풍수미학이 원림 전체 공간의 심상 구도를 형성하고 주요 장소의 위치와 성격을 설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림을 조영하는 데에 있어서 풍수적 사고가 공간 구조 및 조영상의 틀로서 심상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그런 틀로 만들어진 원림이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안정감이라는 미적 속성을 구비하고 있음을 구명하였다. 특히 시각적 안정감의 관점은 원림 내 주요장소에서 주요 지점을 바라보는 시각 구도가 대체로 편안한 각도 이내로서 시각 이론상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특별히 부용동의 주거처 낙서재는 이 같은 풍수미학이 가장 잘 발휘된 곳이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물, 지형지세가 이루는 풍수형국상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각 주요 지점들에 대한 시각적 조망상의 안정감이 잘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풍수적 시각에 의해 얻어진 이 같은 미적 효용은 낙서재를 부용동의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서, 공간 위상적 의의를 강화시키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풍수미학에 의한 이 같은 효용은 그대로 향유, 곧 원림을 즐기는 것으로 이어졌다. 즉, 고산은 스스로 찾아내어 만든 부용동이 최고의 이상적 길지임을 확인하면서 한껏 고양된 자족감을 예술적 성취로 풀어내었다. 그것은 산과 물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어울림을 추구하는 풍수가 지닌, 풍수 본연의 미학적 가치의 발현이기도 하면서, 그러한 추구의 결과로서 풍수 현장 고산 윤선도 원림에서 읽어낼 수 있는 미학적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 전통원림에 구사된 풍수의 제국면과 양상이 미학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만하다는 것이다.

상징이나 의미가 중시되는 한국 전통원림에서 풍수미학의 고찰은 그 같은 형이상학적 차원에서의 읽기가 중요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주 1) 영어로는 Feng-shui로 알려져 있는 풍수 또는 풍수지리는 중국에서 비롯되어 한국과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글에서는 근래 들어 중국과는 다른 양상과 특징으로 전개되어온 한국의 풍수를 특별히 지칭하여 '풍수 Pung-su'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근래 들어와 중국에서 풍수가 지나치게 부귀영하나 발복을 위한 술수 위주로 흐르는 데 반해, 한국의 풍수는 여전히 양택이든 음택이든 땅과의 관계성을 주요 출발지점으로 하고 있어 자연과의 조화로운 만남을 지향하는 풍수 본연의 의미에 더 충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글에서는 한국의 풍수 중 동기감응에 의한 음택보다는 주로 양택 풍수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주 2) 현재 한국전통정원연구에서 원림이라는 용어는 다소 다의적으로 사용되고는 듯하다. 이 연구에서는 원림을 산수 간에 조영된, 자연성이 비교적 강한 정원으로 한정하여 다루되, 이들을 풍수미학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정원에 대한 용어와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기회로 넘기기로 한다.

주 3) 한국정원을 풍수 시각에서 고찰하려는 움직임은 근래에 들어와서야 목격되는 현상이다. 대체로 2000년 이후에 나타난 주요 성과로서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다(김두규, 2000: 63-70); (김용기 등, 2001: 39-47); (이대우, 2003); (장동수, 2003: 43-50); (장동수, 2005: 41-49).

주 4) 풍수미학이라는 용어를 학술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별로 많지 않다. 아마도 학술 문헌상으로 가장 먼저 사용한 이는 장영훈으로, 그는 풍수미학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풍수 현장에서 발견하는 미학'으로 풍수에 의해 입지가 정해지고 조성된 건조물들에서 찾는 아름다움이고, 둘째는 '미학 속에 들어있는 풍수'로서 조성된 건조물들의 배치가 또다시 자연풍광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에서 오는 미학이며, 셋째는 '미학과 풍수의 만남'으로 전통공간이 갖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성에서 찾는 미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 같은 다소 모호한 개념적 분류 이상의 논의를 전개시키지 않아서 이를 풍수미학의 본격적인 논의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장영훈, 2006). 이외에 화가 홍성담은 청와대 터가 지닌 지기를 권력(왕, 대통령)과 연관시켜 풍수적으로 해석한 글을 "청와대 풍수미학"('신동아' 1998년 3월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주 5) 헤겔은 예술미는 인간 정신에 의해 잉태되고 복원된 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정신의 산물을 자연 현상보다 상위에 두기 때문에, 예술미를 자연미에 앞서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김문환, 2001: 35-115).

주 6) 향유, 곧 원림 생활을 누리고 즐기는 차원을 다른 이유는 그것이 풍수 미학적으로 조영한 의도를 설명하는 데에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즉, 예술 창조의 의도나 목적처럼 풍수를 적용하고 구현한 데에도 당연히 의도가 개재되어 있을 것인 바, 향유는 간접적으로나마 그 같은 의도를 더듬어 볼 수 있게 해 준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고산이 원림을 즐긴 양상을 풍수와 연관시켜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는 그가 의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풍수미학의 실제적 효용가치와 의미를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주 7) 고산 사후 정조 대왕은 고산을 무학 대사 이후 최고의 감어자라고 하면서 그의 심안을 높이 평가하였다. "...參議尹善道者 號孤山 世稱今之無學 於堪輿學 素有神眼..."『弘齋全書』〈卷五十七〉.

주 8) 국문학자 문영오는 고산은 문학 쪽이 아닌 이때의 간산임무 수행에서 보여준 풍수가로서의 면모 재평가를 통해 오늘날까지 그 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영조와 정조가 각각 불천위(不遷位)의 지위와 〈고산유고〉간행이라는 시혜를 받은 것은 그의 문학이 아닌, 고산의 풍수가로서의 족적 덕분이었다는 것이다. 정조가 〈고산유고〉를 왕명으로 펴내게 한 목적이 거기에 수록된 산릉의(山陵議)를 보고자 함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펴낸 〈고산유고〉를 통해 그의 빼어난 문학작품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문영오, 1997: 98-107).

주 9) 〈金鎖洞記〉에 나오는 표현이다. "...雖在萬仞之上 面北之地而八風不入 雖天地頓撼之際亦無遊塵野馬蓋..."

주 10) 고산이 자신의 시에 직접 단 주석에 "부용동 안에는 신선들의 자취가 많이 남아 있다. 기이한 봉우리들이 둘러 서 있어서 그 모습이 완전히 연꽃과 같다. 아마도 이곳이 예부터 전해온 부용성이 아닌가 한다."라고 하여 보길도를 부용에 견주어 이름 지은 연유를 밝히고 있다. 『孤山遺稿』〈戲次洞方丈山人芙蓉釣叟歌〉, 『裡仙跡甚多 且奇峰環立 其形宛似芙蓉花辦 疑是古所謂芙蓉城也』. 후손 윤위는 쓴 『甫吉島誌』에서 "사방이 산으로 빙 둘러싸여 있고 푸른 아지랑이가 아른거리며, 무수한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벌여있는 것이 마치 반쯤 핀 연꽃과도 같아" 부용이라 이름지었다고 전한다.

주 11) 부용(芙蓉), 하화(荷花)라고도 하는 연꽃이 지닌 다양한 상징성은 두 가지 관점에 근거한다. 하나는 '연(蓮)'자를 '연(連)'자로 간주하면서 의미하는 상징이고, 다른 하나는 연꽃의 생태적 특징에 연유하는 상징이다. '연속적인 과거급제', '매년 풍족한 생활' 등의 상징이 전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태양, 생명의 창조, 번영, 청결, 순결, 환생, 청렴, 군자 등은 후자와 닿아있는 상징들이다. 그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도교, 민속 등 다양한 종교 및 신념체계상의 범역을 포괄적으로 아우른다. 고산이 이들 다양한 상징의 범주 중에 어디에 주목하였는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보길도의 지형형국에서 유추하여 연화부수형이라고 명명한 데에서는 풍수지리상의 이상적 길지로 간주하고자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한편, 고산은 그의 생애를 거쳐 연꽃과는 특별한 인연을 가졌다는 점도 흥미롭다. 즉, 그가 태어난 곳이 서울의 연화방(蓮花坊, 지금의 종로구 연지동)이고, 해

남 읍씨 종손으로서 물려 받은 종택이 해남 연동(蓮洞)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년 이후 가장 오래 머물며 생을 마친 곳이 바로 보길도 부용동이라는 사실이다.

- 주 12) 고산이 남긴 유적에는 그의 해박한 풍수가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상이 많다. 부용동만 해도 주맥의 혈처에 입지시킨 낙서재, 조산(造山)과 연정(蓮亭), 염승(厭勝)으로서의 동천석실(洞天石室), 그리고 허결(虛結)의 비보(裨補)로서 세연지(洗然池) 등이 그 대표적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지면상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보길도지>, (신영훈, 1999: 47-75), (문영오, 2001: 473-528), (성종상, 2010: 89-92) 등을 참조하라.
- 주 13) 필자는 이를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종합구상도 정도로 간주할 수가 있다고 본다. 지금 같은 수준의 도면이나 정리된 이론서에 의존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작성자의 지식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통합된 이 같은 심적 이미지 틀이 산지에 원림을 만들 때에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 주 14) 참고로 고산이 세연지를 주계류가 아닌 지류에 조성한 연유는 하천공학 및 생태미학적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줄고를 참조할 것(성종상, 2005: 272-273).
- 주 15) 후손 윤위가 고산 사후 76년 뒤에 보길도를 답사하여 쓴 『보길도지』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이다.
- 주 16) 이는 그렇다고 해서 각 장소에서 동적 체험구도가 경시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세연지는 정자뿐만 아니라 토성과 연못 호안 주변, 그리고 판석보, 나아가 옥소대라는 높은 곳을 오르내리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고산 원림이 지닌 이 같은 동적 체험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줄고를 참조할 것(성종상, 2003: 153-154); (성종상, 2010: 94-100); (Sung, Jong-Sang, 2011: 41-52).
- 주 17) 위요감과 조망의 동시 확보라는 낙서재가 지닌 이 같은 시각상의 이점은 <보길도지>에서도 그대로 잘 묘사되어 있다. “...이 곳에 앉으면 부용리들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고, 여러 봉우리들이 연출하는 절경도 모두 취할 수 있다...” 座比俯臨一洞 盡得諸峯之勝 <甫吉島誌> 낙서재편.
- 주 18) 널리 알려져 있는 바대로 J. Appleton의 ‘조망-은신 이론’은 트인 조망은 확보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몸은 숨길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낙서재 위치는 그와 같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은신처는 아니나(타인들이 왕래할 수도 있을만한), 섬 내 주요 활동지점들로 부터는 쉽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주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말하자면 ‘조망-은신 이론’의 느슨한 변용격 입지라 할 수가 있겠다.
- 주 19) 미국 산업디자인사 Henry Dreyfuss는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 있는 사람의 시선은 일반적으로 부각 10도가, 앉아 있는 사람은 부각 15도가 편안하다고 밝혀내었다. 또 일본에서 Okeguchi는 동경타워에서 관찰한 결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각도가 부각으로 8~10도 정도라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인체구조상 위로 쳐다보는 시각보다는 내려다보는 것이 더 편안하며, 그 부각은 10도 정도가 가장 편안한 시각이라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강영조, 2003: 173-179); (Higuchi, Tadahiko, 1988: 38-41); (Dreyfuss, Henry S., 2003).
- 주 20) 공간 위상(位相)이란 특정 지역에서 장소들이 갖는 상대적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필자가 시도해 본 개념이다. 부용동에서 낙서재, 동천석실, 세연정 등은 부용동 전체 공간 속에서의 의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각 장소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이들은 각기 고유의 특성과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용동이라는 전체 공간의 의미 구도 속에서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산이 설정한 부용동의 전체 공간구도를 풍수적 시각으로 보면 위의 각 장소는 혈처, 안산, 수구라는 풍수적 의미 구도로 해석될 수가 있다. 부용동의 이 같은 풍수적 구도는 고산이 전체 보길도를 자신의 원림으로 만들어 나갈 때에 머리속에 지녔던 심상 틀의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서, 이는 마치 현대 조경설계의 기본구상을 위한 공간 틀에 비유될 수 있음은 3장 2절에서 논한 바 있다.
- 주 21) 51세 때 보길도로 들어가 낙서재를 짓고 살기 시작한 이후 고산은 부용동에서 16년, 금해동에서 11년 정도를 머물렀다. 중간에 두 번에 걸쳐 약 8년간 유배생활을 했으니 그의 노년은 부용동과 금해동을 오가며 보내었던 셈이다. 특히 부용동에서는 입도 당시

낙서재를 신축하고 석실 부지를 개간하며, 경물에 이름을 붙인 이래 꾸준히 낙서재 주변을 증축해 나가면서 섬 주요지점을 찾아내어 정원화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심사나 기호에 따라 각 요처에 마련된 정원들을 오가면서 마음껏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동천석실은 자신만의 선계로서 초월적 노닐을, 곡수당은 풍악을 대동한 놀이를, 세연정은 변화한 놀이를, 그리고 남음계는 조용히 노래하며 소요하기에 적격이었다. 그리하여 날씨에 따라 고산은 매일 이들을 선택적으로 오가며 즐겼다고 전한다.

주 22) 후손 윤위가 쓴 <보길도지>에 나오는 표현이다.

주 23) 그가 보길도에 들어간 해(1637)에 쓴 시 <황원잡영 3수>에 묘사된 내용이다. 봉호(蓬壺)란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를 말하는 데, 둘 다 지형이 호리병 모양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서는 보길도를 지칭한다.

주 24) 『孤山遺稿』卷1. <藏(在)島>. 병자호란 직후 처음으로 보길도에 들어온 정축년(丁丑年) 1637년에 낙서재를 마련하고, 격자봉, 남음계, 혁희대, 오운대, 미산, 장재도 등을 찾아 이름을 지으면서 함께 쓴 한시이다.

인용문헌

- 『孤山遺稿』.
- <金鎖洞記>
- 『弘齋全書』 <卷五十七>.
- 윤위, 『甫吉島誌』.
- 강영조(2003). 풍경에 다가서기. 효형출판.
- 김두규(1998). 우리 땅 우리 풍수. 동학사.
- 김두규(2000).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본 면양정 입지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2): 63-70.
- 김두규, 김용기, 김현욱(2001). 풍수지리 관점으로 해석한 귀래정 입지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9(4): 39-47.
- 김문환(2001). 자연미학의 전개과정과 현대적 의의-환경미학의 정초와 관련하여. 미학 30집: 35-115.
- 문영오(1997). 고산의 문학 정신과 그 의의. (해남문화원. “고산문학과 해남”).
- 문영오(2003). <면양정가>의 풍수지리적 접근. 도교문화연구 19집: 143-163.
- 문영오(2001). 고산문학상론. 태학사.
- 민주식(2001). 풍경의 미학-풍경미의 구조와 원리. 미학 31집.
- 백기수(1971). 응용미학의 기초학으로서 일반 미학의 기초개념. 미학 1집.
- 성종상(2003). 조경설계에 있어서 ‘생태-문화’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고산 윤선도 원림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종상(2005). 고산 윤선도 원림의 생태적 수정연출기법. 환경논총 43(23) 서울대학교.
- 성종상(2010). 고산 윤선도 원림을 읽다. 나무도시.
- 신영훈(1999). 보길도와 윤선도. 조선일보사.
- 이대우(2003). 풍수조경. 청동거울.
- 장동수(2003). 한국 전통도시의 풍수적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1(1): 43-50.
- 장동수(2005). 전통도시조경의 비보풍수적 기법에 관한 연구: 조산숲과 원지 제방숲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3): 41-49.
- 장영훈(2006). 대학풍수강론. 도서출판 담디.
- 장파(1999). 동양과 서양, 아름다움을 비추는 두 거울을 찾아서. 푸른 숲.
- 정재훈(1993). 보길도 부용동정원. 열화당.
- 조인철(2008). 우리시대의 풍수. 민속원.
- 최원석(2004). 한국의 풍수와 비보: 영남지방 비보경관의 양상과 특성. 민속원.
- 최창조 편역(1992). 터잡기의 예술-서양인이 본 풍수사상. 민음사.
- 최창조(2000). 땅의 눈물, 땅의 희망. 서울: 궁리.
- 홍성담(1998). 화가 홍성담의 청와대 풍수미학 (김두규, “우리 땅 우리 풍수”). 서울: 동학사. pp. 368-390.
- Bell, Simon(1999). Landscape: Pattern, Perception and Process. Taylor & Francis.
- Bishop, Claire(2004). Antagonism and Relational Aesthetics, October.

- Vol. 110, The MIT Press, pp. 51-79.
32. Bourriaud, Nicolas(1998). Relational Aesthetics, Les Presse Du Reel, Franc.
33. Carlson, Allen(2000). Aesthetics and the Environment- The Appreciation of Nature, Art and Architecture, Routledge: London.,
34. Clack, K.(1979). Landscape into Art, London: J. Murray.
35. Dreyfuss, Henry S.(2003). Designing for People, Allworth Press.
36. Godlovitch, Stan(1998). Evaluating nature aesthetically.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6: 113-125.
37. Higuchi, Tadahiko(1988). The Visual and Spatial Structure of Landscapes (Tr. by Terry, Charles, The MIT Press.
38. Pennings, Mark (2005). Relational aesthetics and critical culture, In Proceedings Transforming Aesthetics, pp. 1-9,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39. Sung, Jong-Sang(2011). Thoughts on walk at garden of Joseon dynasty: Focused on Scholar garden in mountain,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International Edition, N.9-1: 41-52.
40. Zhou, Lai-Xiang(1985). A Comparison between Eastern and Classical Aesthetics, in Peter J. McCormic ed., The Reasons of Art, University of Ottawa Press.

원 고 접 수 일: 2012년 7월 30일

심 사 일: 2012년 8월 30일 (1차)
2012년 11월 23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12년 12월 28일

4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